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생활소독단’ 가동

전남도, 장기실업자·여성세대주·청년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12개 시군 어린이집 203개소 211명 생활소독사 배치... 月45만원 임금

전남도는 어린이집 생활소독을 지원할 ‘푸른전남 무지개 생활소독단’ 사업을 10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푸른전남 무지개 생활소독단 사업은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집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장기실업자와 여성세대주, 청년여성 등 일자리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제공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발열체크, 소독관리, 거리두기 유지 등 피로도가 누적돼 온 점을 고려해 양질의 보육여건 조성 및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 강화와 함께 지역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됐다.

생활소독사 참여대상은 실직자와 자영업자 중 휴·폐업자를 비롯 청년여성 등 일자리 지원이 필요

한 여성 도민이다.

담양과 구례, 고흥 등 12개 시군에서 공모를 통해 211명이 선발됐으며, 방역소독 요령 및 감염예방 지침 등을 교육 후 도내 203개소 어린이집에 이달 초까지 배치될 계획이다.

근로기간은 3개월로 하루 2.5시간을 근무하게 되며, 급여는 시급 8천 590원을 적용해 월 평균 45만

원의 임금이 지급된다.

생활소독사들은 주 5회 어린이집의 현관과 보육실, 화장실 손잡이, 계단, 난간, 교구, 장난감 등 접촉이 잦은 부분을 중점 소독하게 된다.

김중분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여성도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희망의 씨앗이 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여성일자리 지원 및 감염병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시책들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광주시 '온라인 코로나19 후유증 극복센터' 박유환 센터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광주 광산구 하남동 모 병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코로나19 환자 낙인·기피 안 돼...심리적 연대 절실”

박유환 광주시 후유증 극복센터장 “심신 안정 우선”

“코로나19 확진자를 낙인찍어 기피해서는 안 됩니다. 질병 앞에는 모두가 평등한 만큼 완치된 사람들의 경험을 받아들이고, 심리적 연대를 가져와야 재난 속 성숙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박유환(57) 광주시 온라인 코로나19 후유증 극복센터장은 4일 “신체·심리적 후유증을 겪는 완치자는 진단·치유 과정을 거쳐 신체 리듬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센터장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완치 이후에도 ‘확진자’라는 꼬리표가 붙는다. 완치자들은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대인기피증·분리불안증·인지장애·소외감·자책감 등 이른바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만성피로·두통·흉통·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상담 사례를 소개했다.

바이러스와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분리하지 않고 비방을 할 때 확진자를 향한 낙인이 형성되는데 이는 자기 낙인, 2

차 질환, 집단 갈등 등 여러 악영향으로 변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완치자에 대한 낙인·기피가 아닌 심리적 연대를 강조했다. 회복 뒤 증상이 사라지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환자들의 경험을 겸허히 수용해야 재난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박 센터장은 “완치자들은 내과·가정의학과·작업환경의학과·신경정신과 등 센터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심신 안정을 되찾아가는 중”이라고 했다.

또 “코로나19 감염 규모보다 상담 사례가 적다. 코로나19 후유증이 의심되면 센터 홈페이지에 게시글을 올려 달라. 온라인 상담 댓글이든, 의료진 연계를 위한 대면 상담이든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장한다. 비용도 전액 무료”라며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광주시는 온라인 코로나19 후유증 극복센터를 운영, 코로나19 완치 뒤 후유증을 앓는 시민들에게 무료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김민정기자

코로나19 사각지대

위생·안전키트 전달

한국철도 광주전남본부 봉사단

한국철도 광주전남본부 사회봉사단(단장 전장호)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20가구에 위생·안전 키트를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광주전남본부 직원들이 힘을 모아 미니 청소기, 소화기, 진드기 패치, 곰팡이 제거제 등을 담은 위생·안전 키트를 제작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선정 순천, 광양, 여수지역 취약계층 20가정에 전달했다.

또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협업하여 시행한 이번 행사는 위생·안전키트 나눔 활동뿐만 아니라 주거 개보수 활동 및 교육 활동을 추가적으로 시행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전장호 광주전남본부 사회봉사단장은 “이번 활동을 통해 더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 역할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고흥군, ‘제27호 천사랑 나눔 사랑의 집’ 준공 기증식

산하 700여 공직자·자원봉사팀 일궈낸 사랑의 결정체



고흥군 대서면 서호마을에서는 최근 ‘제27호 천사랑 나눔 사랑의 집’ 기증식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 차원에서 송귀군 군수를 비롯한 서호마을 주민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조촐하게 열렸다.

이러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새 보금자리를 만들어 기증을 이어오고 있는 고흥군(군수 송귀군)의 천사랑 나눔 사랑의 집 기증식이 눈길을 끈다.

이번에 기증한 ‘27호 천사랑 나눔 사랑의 집’은 방, 거실, 주방 등 61.6㎡ 규모의 조립식 주택으로, 공무원의 자발적인 성금과 자원봉사단체인 러브하우스 팀의 건축 공사 기부, 건축사 사무소 헤인사 고흥지사의 무료 지적측량, 대서면 사회단체 및 주민들의 생활용품 기증 등 사랑과 온정이 어우러져 완공되었다.

송귀군 고흥군수는 축사를 통해

“우리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보태 어려운 이웃에게 안락한 주거 공간을 마련해 주어 매우 기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며 “새집을 기증받으신 가족이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삶의 희망과 용기를 얻고 행복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천사랑 집짓기 사업은 공무원이나 자원봉사자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에서는 자원봉사팀과 우호 협력 관계를 상시 유지하면서 전 공직자가 재원 조성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흥군의 천사랑 집짓기 사업은 군 산하 700여명의 공무원들이 솔선 참여하여 건축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재능기부로 건물을 준공한 후 주거상태가 열악한 저소득 가정에 기증하는 사업이며, 2003년부터 현재까지 총 7억 1백만 원의 재원을 조성해 27채의 사랑의 집을 기증해 오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를 두어 주세요!